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는 하나님의 말씀은 기도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라, ‘이제는 믿음의 길을 걸으라’는 명령이었습니다. 지금은 두려워할 때가 아니라 믿음으로 행동할 때라는 의미였다.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시고 새 길을 여시겠다는 약속이었습니다. 홍해와 바로의 군대는 단순한 물리적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문제였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중독, 분노, 시기, 혐기, 미움 등 삶 속의 많은 문제들은 영적 전쟁의 결과일 수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이기기 위해서 보혈의 능력을 믿고 담대하게 선포해야 합니다. 말씀을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악한 세력을 대적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악한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모세는 순종합니다. 모세는 손을 내밀었습니다.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되니라”(출 14:21). 모세가 내민 손은 단순한 인간의 손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임한 손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그런 손을 찾고 계십니다. 믿음으로 손을 내밀 때, 하나님의 기적은 지금도 이어집니다. “새 길을 만드시는 분, 큰 기적을 행하시는 분, 그는 우리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분, 어둠 속을 밝히시는 분, 그는 우리 하나님” 2026년 한 해 믿음의 길을 걸으면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올 한 해 신일의 모든 영가족이 순종함으로,
미래에 주시는 축복을 받는 원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 기도문 ----- 다 같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한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 하나님께서 베풀어주신 모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



2026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福

설 가정예배 순서지



Shinil 신일교회
SHINIL PRESBYTERIAN CHURCH

서울시 금천구 시흥대로90길 25
☎ 08617 / TEL. 02.892.2591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요 4:24)

묵상기도 ----- 다 같이

“설 명절을 맞아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신앙고백 ----- 사도신경 ----- 다 같이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 찬송가 28장 (통 28장) ----- 다 같이

1.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심 측량 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2. 주의 크신 도움 받아 이 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끄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 흘려 주셨네
3.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빛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맘은 연약하여 범죄 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치소서 아멘

성경봉독 ----- 출애굽기 14:15-16 ----- 다 같이

출 14:15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출 14:16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말씀 ----- 대표자

제목 : “새 길을 여시는 하나님”

‘사면초가’라는 말이 있습니다. 문자적으로 ‘사방에서 초나라 노래가 들려온다’는 뜻인데 ‘주변이 온통 적에게 둘러싸여 아무런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상태’를 뜻하는 사자성어입니다. 혹시 새해를 맞는 우리의 상황이 이렇지는 않은지요? 개인, 가정, 직장, 사업장, 교회, 나라 등 온통 사면초가에 빠져 앞으로도 옆으로도 뒤로도 가지 못하는 위기의 상황에 빠져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1. 두려워하지 말라

400년간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이 드디어 그토록 고대하던 출애굽의 감격을 맛보게 되었습니다. 그 흥분이 가시기도 전에 그들은 엄청난 장애물을 만납니다. 홍해가 놓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가 군대를 이끌고 쫓아옵니다. 앞은 바다고, 뒤에서는 애굽 군대가 있습니다. 옆은 산입니다. 앞으로도 갈 수 없고 뒤로도 갈 수 없고 옆으로도 갈 수 없습니다. 사면초가에 놓여져 있었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이 두려워합니다.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출 14:10). 이게 보통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들이 왜 두려워합니까? 환경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변화무쌍한 환경만을 바라보며 묵상하기 때문입니다. 진정 역사를 일으킬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기에 두려워합니다.

‘두려움’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두려움은 ‘경고, 불안, 무질서에 대해 우리 정서 내부에 야기된 고통스러운 감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두려움은 두려움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 두려움이 가지고 있는 파괴적 위력이 문제입니다. 2차 세계대전 때 전쟁에서 죽은 전사자보다 전쟁의 두려움 때문에 죽은 사람의 수가 더 많았다고 합니다. 바로 그것이 두려움이 내포하고 있는 파괴적 위력입니다. 혹시 2026년 ‘사면초가’에 놓여 있는 분이 있습니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믿으세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세요. 사 41:10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 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우리가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것은 나의 담대함이나 신념 혹은 능력으로 가능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가능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승리의 주체’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승리를 통해 그의 주권과 그의 백성에 대한 약속 성취, 그리고 죄와 사망과 사탄에 대한 궁극적인 정복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을 믿음으로 두려움을 극복하는 새해 되기를 바랍니다.

2. 믿음의 길을 가라

그런데 하나님은 그 순간 모세에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출 14: 15-16) 고 하십니다.